

배포 일시	2023. 1. 5.(목)		
담당 부서	도로국	책임자	과 장 김형철 (044-201-3927)
	도로시설안전과	담당자	사무관 강지연 (044-201-3922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## 국토부, 방음터널·방음벽 화재 안전대책 긴급 지시 - PMMA 방음터널 교체, 소화·피난시설 설치 등 조치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월 5일에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사고(12.29),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방음벽 화재(1.3)와 관련하여 각 도로관리청\*에 화재 안전대책 마련을 긴급 지시하였다.

\* (고속국도) 한국도로공사, (일반국도) 지방국토관리청, (민자고속도로) 민자법인, (특별시도) 특별자치시장, (시도) 시장, (군도) 군수 등

○ 앞서, 국토부는 지난 12월 30일에 폴리메타크릴산메틸(PMMA) 재질의 방음터널을 설계·시공하고 있는 현장의 일시중단과 국토부 및 지자체 소관의 방음터널, 지하차도 등 유사시설 1,981개소에 대한 긴급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.

□ 이후, 국토부는 지난 4일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1차 전문가 회의\*를 개최하여 방음터널 방재 관련 국내·외 기준, 관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살펴보고 방음터널의 화재 예방을 위한 단기·중장기 대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.

\* 참석자 : 건설기술연구원, 국토안전관리원, 한국화재폭발솔루션, 도로교통연구원 등

- 참석자들은 폴리메타크릴산메틸(PMMA)과 같이 인화성이 높은 재질은 화재 발생시 확산 속도가 빨라 안전에 취약한 만큼, 불연성·준불연성 소재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.
- 이에, 국토부는 각 도로관리청에 사고 구간과 유사한 PMMA 등의 자재를 사용한 방음터널, 방음벽을 계획·설계·공사 중인 경우 즉시 중단하고 추가적인 화재 안전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·시행할 것을 지시하였으며,
- 운영 중인 PMMA 재질의 방음터널, 방음벽에 대해서는 불연성, 준불연성 재질로 교체하거나, 소화·경보·피난 대피시설 설치, 개구부 설치,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불연성 도료 도포 등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즉시 강구하여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.

《 개선대책(예시) 》

- ① 폴리메타크릴산메틸(PMMA) 재질을 불연성·준불연성·자기소화성 등이 있는 재질(예시 : 폴리카보네이트(PC), 유리, 금속재)로 교체
- ② 터널형 방음시설의 화재 예방에 필요한 소화·경보·피난대피 시설 설치 ("도로터널 방재·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" 참고)
- ③ 화재 발생시 열·연기 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천정부 또는 측벽부 일부 구간에 개구부 설치
- ④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방음터널, 방음벽 표면에 불연성 도료 도포

- 이용욱 도로국장은 “현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, 방음터널·방음벽 화재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전문가,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조속히 마련할 계획” 이라고 밝혔다.